

2018년 9월 5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종목 장세 속에 하락 마감

일부 기술주, 바이오 부진 Vs. 금융주, 경기소비재 상승

종목별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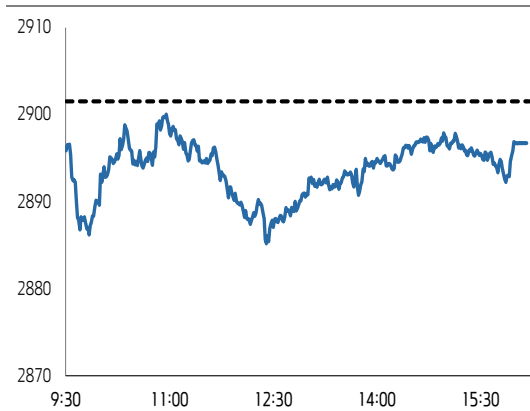
미 증시는 캐나다와 중국과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유입되며 하락. 특히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와 반도체, 일부 기술주가 부진한 반면, 금융주 및 소매판매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특징(다우 -0.05%, 나스닥 -0.23%, S&P500 -0.17%, 러셀 2000 -0.42%)

미국 증시를 비롯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부진. 그러나 지수 보다는 종목 및 업종별 이슈에 주목하는 종목 장세가 특징. 아마존(+1.33%)이 애플에 이어 장중 한 때 시가총액 1 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애플 또한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감. 반면, 페이스북(-2.60%)이 투자이견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하자 알파벳(-1.66%)을 비롯한 나머지 FAANG 기업들도 하락하는 등 차별화 장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한 AMD(+11.48%)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했으나, 시게이트(-7.71%), 웨스턴디지털(-4.74%)은 NAND 가격이 2019 년 상반기 두자리 수 비율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투자이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 한편, 최근 상승을 주도 했던 바이오젠(-1.92%) 등 바이오 업종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한 반면, 하락하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차익실현 매물과 반발 매수세가 혼재된 점도 특징.

더불어, 골드만삭스가 노드스트롬(+3.45%)에 대해 투자이견을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백화점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을 보이는 등 소비 관련주 또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짐. 이러한 경향은 캐나다와 중국과의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시키며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15.72	+0.38	홍콩항셱	27,973.34	+0.94
KOSDAQ	827.27	+1.28	영국	7,457.86	-0.62
DOW	25,952.48	-0.05	독일	12,210.21	-1.10
NASDAQ	8,091.25	-0.23	프랑스	5,342.70	-1.31
S&P 500	2,896.72	-0.17	스페인	9,376.30	+0.00
상하이종합	2,750.58	+1.10	그리스	710.24	-2.19
일본	22,696.90	-0.05	이탈리아	20,601.00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종목별 차별화

아마존(+1.33%)은 낙관적인 실적 기대감이 유입되며 애플에 이어 두번째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애플(+0.32%)은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했다. 반면, 페이스북(-2.60%)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했다. 알파벳(-1.66%), 넷플릭스(-1.11%) 등 FAANG 기업들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이어졌다. AMD(+11.48%)는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급등했다. 그러나 시게이트(-7.71%)와 웨스턴디지털(-4.74%)은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했다. 마이크론(-1.12%), 인텔(-0.97%) 등 반도체 일부 종목도 동반 하락했다.

노드스트롬(+3.45%)은 골드만삭스가 매수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콜스(+3.72%), TJX(+1.34%)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나이키(-3.16%)는 광고에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NFL 쿼터백을 출연시킨 이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한편, JP모건(+0.50%), BAC(+0.68%), 웰스파고(+0.55%)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바이오젠(-1.92%), 길리어드사이언스(-1.90%), 셀진(-3.01%) 등 바이오업종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13%	대형 가치주 ETF	-0.11%
에너지섹터 ETF	-1.46%	중형 가치주 ETF	-0.28%
소매업체 ETF	+0.46%	소형 가치주 ETF	-0.58%
금융섹터 ETF	+0.49%	배당주 ETF	+0.05%
기술섹터 ETF	-0.37%	변동성 ETF	+0.4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1%	대형 성장주 ETF	-0.12%
인터넷업체 ETF	-0.45%	중형 성장주 ETF	+0.35%
리츠업체 ETF	-0.89%	소형 성장주 ETF	-0.20%
주택건설업체 ETF	+0.32%	신흥국 고배당 ETF	-1.97%
바이오섹터 ETF	-0.97%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7%
헬스케어 ETF	-0.80%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0.73%	Long/short ETF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6.02	-0.28%	-1.16%	-2.13%
소재	368.59	-0.81%	-1.93%	-0.82%
산업재	645.69	-0.00%	-0.78%	+1.24%
경기소비재	931.51	+0.25%	+1.31%	+4.00%
필수소비재	550.25	-0.22%	-0.74%	-1.29%
헬스케어	1,063.58	-0.73%	-0.09%	+2.27%
금융	471.81	+0.53%	-0.47%	+0.71%
IT	1,323.19	-0.30%	+0.75%	+3.00%
통신	152.27	-1.12%	-3.13%	+0.82%
유틸리티	271.17	+0.55%	+0.60%	+0.29%
부동산	206.58	-0.90%	+0.03%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83% MSCI 신흥 지수도 1.9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575 계약) 여파로 1.05pt 하락한 297.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7.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방향성 없는 등락을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종목장세가 펼쳐진 점이 특징이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 또한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미 증시 특징 중 하나는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이 급락이다. 글로벌 자문사이자 분석회사인 Evercore ISI 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이 2019 년 상반기에 두 자릿수의 비율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목표주가 및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6 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 소매협회가 2 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뉴욕연방준비은행 또한 트럼프의 무역 관세로 이미 뉴욕 지역의 제조업자들에게 원자재 및 기타 투입비용의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발표하며 향후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미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2004 년 이후 최고치 경신

미국의 8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8.1)이나 예상치(57.7) 보다 상향된 61.3 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2004 년 5 월(61.4) 이후 최고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한국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규 수주는 전월(60.2) 보다 개선된 65.1 로 발표 되었으며, 고용지수(56.5→ 58.5), 생산지수(58.5→63.3), 재고지수(53.3→55.4) 등이 상승 했다.

미국 7 월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1% 상승 했다. 한편, 비거주 건설이 1% 감소해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대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공공부문 지출이 0.7% 증가해 미 정부의 인프라 투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시간 외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일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장중 한 때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허리케인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일부 정유시설에 영향을 줘 재고 증가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한편, 장 마감 후 미국의 원유재고 및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달러지수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을 한 여파로 캐나다달러 및 멕시코 페소화가 1% 내외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0.25%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브라질 헤알화 또한 달러 대비 소폭 약세에 그쳤다. 다만, 남아공의 란드화는 2 분기 GDP 성장률이 0.7% 위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3.58%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ISM 제조업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 를 통해 3 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4.1%→4.7%) 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경제지표 개선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우려가 확대된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1% 철근도 0.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87	+0.10	+1.45	Dollar Index	95.408	+0.28	+0.73
브렌트유	78.17	+0.03	+2.46	EUR/USD	1.1585	-0.29	-0.94
금	1,199.10	-0.63	-1.39	USD/JPY	111.45	+0.34	+0.23
은	14.180	-2.59	-5.29	GBP/USD	1.2856	-0.11	-0.13
알루미늄	2,062.00	-1.67	-3.35	USD/CHF	0.9742	+0.51	-0.22
전기동	5,815.00	-2.55	-5.40	AUD/USD	0.718	-0.47	-2.15
아연	2,415.50	-1.93	-4.90	USD/CAD	1.3184	+0.68	+1.95
옥수수	368.25	+0.89	+1.87	USD/BRL	4.1524	-0.15	+0.36
밀	531.50	-2.57	+1.72	USD/CNH	6.8482	+0.19	+0.70
대두	844.25	+0.09	-0.47	USD/KRW	1114.90	+0.41	+0.44
커피	101.45	-0.34	-4.07	USD/KRW NDF 1M	1117.70	+0.53	+0.8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99	+3.81	+1.81	스페인	1.425	-2.30	-2.70
한국	2.309	+0.70	-4.80	포르투갈	1.856	-4.10	-1.30
일본	0.123	+0.50	+2.50	그리스	4.526	+10.30	+37.20
독일	0.357	+2.40	-2.30	이탈리아	3.012	-14.50	-17.00